

노인 상대 사기, 사슴농장 대표 구속 중탕기에 넣은 녹용 다시 빼내기도

노인을 상대로 싸구려 한약을 질병에 특효가 있는 고가의 한약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슴농장 대표 손모씨(37살)와 농장 직원 최모씨(40살) 등 7명이 서울경찰청에 의해 적발됐다.

손씨 등은 온천욕 등 무료관광을 미끼로 전국에서 노인들을 모집한 뒤 사슴농장으로 데려가 약사 등을 동원해 분위기를 띄우는 수법으로 노인들의 돈을 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값싼 한약재로 만든 가공식품을 녹용이 들어있어 관절염과 신경통에 효과가 탁월한 민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피해자 3천여명에게서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원가가 2만원도 채 되지 않는 약재를 39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노인들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중탕기에 녹용을 직접 넣게 하고 이를 보지 않는 사이 다시 빼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씨가 판 39만원짜리 건강식품의 원가는 2만원에 불과했다"며 "술과 음식, 온천욕을 제공하고, 약사를 동원해 여흥까지 북돋웠기 때문에 노인들이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손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국의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을 모집한 모집책 박모(53)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중탕 제조시 식용금지된 원료 사용시 엄벌 마황·백부자 등 사용시 1년 이상 징역

식용 금지 원료로 식품 가공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서 중탕 제조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7월28일부터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부자·천오·초오·백부자·섬수 등이나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그 판매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감시·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현행 3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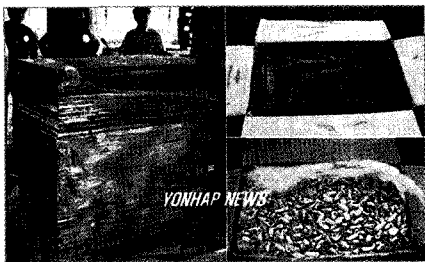
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 광고 등 위해와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국제기구 등 사용금지 식품,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위해성분 검출식품,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벌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녹용 150kg 대량 밀수 검거



화강석 판재에 내뿜을 내고 그 속에 밀수품을 숨기는 속칭 '심지박기' 수법으로 중국산 인삼, 녹용 등을 대량 밀수입한 조직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세관은 7월 11일 중국산 녹용 150kg, 인삼 4톤 등 시가 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모상사 대표 이모(남, 47세)씨를 구속하고, 국내 구입 및 자금책 등 관련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또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녹용·인삼 등 보양식품 밀수가 기승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 조선족 안모씨로부터 밀수입 제의를 받고, 중국산 녹용 등을 숨겨 보내온 20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의 화강석을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수입신고 수리한 후, 국내 구입 및 자금책에게 운송하러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됐다.

또 녹용은 기본관세 20%가 부과되는 등 고관세율 품목으로서 전통적인 밀수입 인기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의거 검역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하며 검역을 거치지 않은 밀수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녹용서 패혈증 치료물질 추출

녹용 성분을 이용해 중환자실 입원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패혈증을 치료하는 방안이 한 바이오업체에서 연구되고 있다.

바이오업체인 엔지랩은 전 아산중앙병원 전문의인 김상희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녹용 성분이 패혈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발견, 임상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패혈증은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중독 증세를 나타내거나, 전신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중환자실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또 사망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현재

치료제 시장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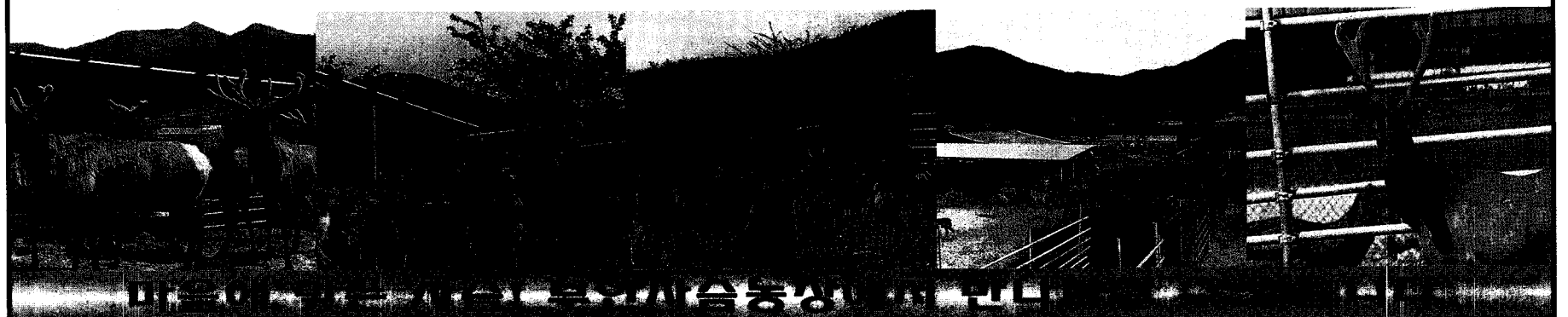
회사측은 "녹용에 든 패혈증 치료물질을 경구투여 약재로 쓰면 면역체계의 기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약리작용을 하게 된다"며 "동물실험에서는 생존율 90%이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사업화 전망에 대해서는 "3~5년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최초의 패혈증 예방 및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이라며 "현재 2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은 2011년에는 4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슴 분양! 부안사슴농장에서 해결하세요!

부안사슴농장

- 총 230여두의 사슴 보유
- 엘크, 꽃사슴, 레드디어 취급
- 사슴 무제한 구입 및 판매
- 우수사슴 다량 보유
- 우수사슴 구입 및 판매
- 사슴 매매 알선



부안사슴농장

대표 : 허영수

주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삼산부락 20-3

농장 : (063) 584-0890

건강원 : (063) 583-7876

계좌번호 : 농협 539-12-088712

팩스 : (063) 584-0857

핸드폰 : 011-651-0856